

「종군위안부」에 관한 각종 일본역사 교과서의 기술

A사 : . 다수의 여성이 종군위안부로서 중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전선과 오키나와 등에 연행되어 일본전쟁의 희생이 되었다.

「종군위안부」에 일본군이 권여했던 것을 나타내는 공식기록이 확인되어 세심 일본군의 비인도적인 행위가 명백해졌다.

. 1992년 1월 수상 미야자와 기이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여 “최근 소위 「종군위안부」문제가 취급되고 있는데 실로 마음아픈 것이며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B사 : 조선 및 대만 필리핀 등에서는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모아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로서 중국 등의 전선에 보냈다.

C사 : 조선에도 징병제가 공포되어 또 여성도 정신대로 모아지고 많은 여성들이 종군위안부로 되었다.

D사 : (각 주로) “종군위안부”로서 연행된 여성도 있었다.

E사 : 조선과 대만에서 황민화정책이 한층 추진되어 그 위에서 징병제가 도입되었다. 또 여성중에는 종군위안부로서 일본군에게 연행된 자도 있었다.

F사 : (조선에서는) 1943년에는 징병제가 공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선에 보내졌다. 또 노동자.종군위안부로서 전선에 동원된 사람도 있었다.

G사 : (각 주로) 1943년(소화 18)에 조선에, 1945년(소화20)에는 대만에 징병제가 적용되어 조선, 대만의 사람들도 전장에 끌려나갔다.

여성중에는 전지의 군의 위안시설에서 일해야 했던 사람도 있다.

(각 주로) 조선, 대만에도 징병제가 공포되어 조선, 대만사람들도 징병되어 일본군의 포함되었다. 여성중에는 전지의 군의 위안시설에서 일해야 했던 사람도 있다.

(각 주로) 조선에서는 1943(소화18)년, 대만에서는 1945(소화20)년에 징병제가 공포되었다. 여성의 경우, 전지의 군의 위안시설에서 일해야 했던 사람도 있다.

주) A사는 복수개소(複數個所)에서 기술, G사는 3종류에서 기술

(일본의 중국신문에 보도된 기사)